

# 참을 수 없는 행복

한 동헌 | 마이크임팩트 대표

한 매거진의 인터뷰 자리에서 기자가 나에게 물었다. “행복하세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참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합니다”라고 답하였다. 사실 그냥 행복한 것도 어려운데,

참을 수 없이 행복하다니, 내가 말해 놓고도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보았다. 벤처기업을 하다 보면 이전에 비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많이 놓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더 행복해진걸까. 왜 참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한 걸까.

나는 창업하기 이전에 글로벌 탑컨설팅 회사를 다녔다. 엄선된 소수만을 선발하고, 연봉이나 복지 면에서 대우도 매우 좋아 많은 경영학도들이 꿈꾸는 직장이다. MBA를 진학해야 승진이 되므로 2년을 일하고 MBA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문득 좋은 MBA를 들어가기 위해 동료들과 경쟁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사회에 나오면 일렬로 세워 놓고 달리는 경주는 사라질 줄 알았는데, 사회에 나와도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경쟁은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승진 경쟁, 집 경쟁, 자식 경쟁으로 이어지며 인생의 끝나는 날까지 이어질 것만 같았다. 이렇게 남들이 만들어 놓은 판에서 의미없는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판을 만들고, 나만의 경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렇게, 나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하였다.

처음 ‘강연’이라는 생소한 분야에 발을 들여놓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강연 콘서트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했다. 그러나, 콘텐츠에 대한 믿음과 청년층을 향한 순수한 선의가 5,000명의 청춘들을 불러모으며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는 다른 사업기회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한국에 토크 콘서트 열풍까지 불러오게 되었다. 이제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사람들의 인식에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신이 인간에게 허락한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창조자의 기쁨일 것이다.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창조자로서의 가슴 뿌듯한 행복은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강렬한 행복이었다.

또한 창업을 하고 진정한 나의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 뿌듯한 감동을 느낄 때가 있다. 한국에서는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살기가 어렵다. 정답인 삶의 모습과 인생을 정해 놓고, 롤모델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삶을 강요한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때도,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나답고 행복할까'가 아니라,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명할까'라고 내가 아닌 남으로 질문의 주체를 바꿔버린다. 나는 창업을 하기 전에, 내가 언제 행복하고, 무얼 가장 잘하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였다. 나는 돈을 벌고 이럴 때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때 가장 행복하고, 팀 환경에서 기획일을 할 때 가장 잘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그 깊은 고민에 대한 답 그대로 살고 있다. 완벽한 '자기다움', 그것이야말로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의 전략이자, 궁극의 행복의 근원이다.

그리고 나는 꿈을 살고 있어 행복하다. 보통은 꿈을 위해 현실을 희생한다. 오지 않을 꿈을 위안 삼으며, 현실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 나 역시 직장 다닐 때는 그러하였으나, 창업하고 나서는 꿈과 현실의 간격이 급격히 좁혀지는 것을 느낀

다. 내가 오늘 꿈 꾸면, 이는 먼 훗날 언젠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내일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나는 토크쇼 호스트가 꿈이었다. 근데 그 꿈을 연예인도 방송인도 아닌 내가 어떻게 이루겠는가. 그래서 내가 그런 유명인들을 초청하는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서 직접 토크쇼를 진행하였다. 그렇게 나는 말도 안되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어찌보면 참 쉽게 이루었다. 그리고 지금 꾸는 꿈들도 그렇게 현실이 될 것을 알기에, 꿈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다. 그래서 나는 가끔 현실을 사는 게 아니라 꿈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꿈 생각만 해도 항상 가슴이 뛰고, 설레고, 힘이 나는 이유가 그런 것 같다. 꿈 속에 사는 행복, 꿈을 이루어갈 때의 그 짜릿한 성취감, 그 환상적인 느낌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내가 나의 행복을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나는 행복하다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다. 나처럼 행복하기 위해 창업이라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다. 나는 깊은 고민을 거쳐 '나만의 행복'을 정의하였고, 그 정의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 청춘들이 나만의 행복을 정의하고, 그 정의대로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갔으면 한다. 남의 행복이 더 커 보이고, 남의 행복이 정답 같아서, 결국 남의 삶을 살게 되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청춘들이 '나만의 행복'을, 바로 참을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여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일하고, 현재 마이크임팩트를 창업하여,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베스트 청년 창업 사례, 대한민국 베스트 혁신 대상, 2010년을 이끌 미래 혁신리더 등으로 선정되었고, 『청년기업가정신』, 『그들의 청춘을 질투하기에는 넌 너무 젊다』 등의 책에 수록되었다.

---